

마음에도 거절절이 있습니다.

지금의 시련 거울도 결국은 봄을 부르기 위한 기다림입니다.

아침 진안의 와이산에 도착, 걸어간다. 인적없는 이 길에서
(진안고향길)
이정표 같은 와이봉을 향해 두박 두박
손주의 건강 기원과 무사성장을 기원 하며
이쁜 딸의 취업 성공과 새 회사에 잘 적응하기를
아들의 두정이 성공하기를 모두 모두 기원하며
우리 가족 평안하기를 두 손 모아 두 봉우리를 보며 마음 모아
기원하며 다시 와이봉으로 향한다. 진안의 아침 향을 맡으며
진안의 시원한 아침 바깥을 밝으며,

▶ 진안군 정신건강복지센터 (063)430-8529

▶ 자살·정신건강 위기상담 1577-0199

QR코드를 찰칵! 찍어주세요



나들e진안



마음건강